

제 192 호

연중 제 17 주일

1976. 7. 25.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상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神들린 女人 (Antichrist)

정 승 현 신부

한 친구가 외국잡지에서 「엑소시스트」(Exorcist)란 영화에 대해 소개한 글을 읽고 심각하게 건네온 말이 생각난다. 현대에도 악의 세력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아니 그 어느때보다도 더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오히려 그 악의 세력에 조종되는 감마저 들지 않나? 아마 이 작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그런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야.

나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엑소시스트」란 작품을 읽어왔고 영화를 본 뒤 그의 말에 동감했었다.

「앤티크라이스트」(Antichrist)란 영화—우리 말로 「神들린 女人」이라고 번역해 놓았다—도 「엑소시스트」와 비슷한 내용이였다.

이폴리타라고 하는 아가씨가 악마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숙부뻘되는 성직자의 도움을 청한다. 그는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소개한다. 이 의사는 소급회면요법을 써서 이폴리타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그러나 의사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마침내 驅魔儀式을 거행하기로 결정한다. 托鉢修道司祭가 구마예식을 행하기 위해 불려온다. 온갖 더러운 욕설과 행위를 무릎쓰고 이루어진 구마예식 끝에 이폴리타는 집을 뛰쳐나가 악령승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달아난다. 그녀는 큰 십자가 아래 쓰러지고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신체를 해쳐놓는다.

그리스도의 적(antichrist)은 누구인가?

요한 1서 2, 22-23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며 따라서 아버지(聖父)도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한다. 요한 2서 1, 7-8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한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을 부인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러한 것들(제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체제같은 것들)에 알개 모르게 협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반성해 본다.

미신, 우상숭배, 악령승배, 비과학적인 사고뿐 아니라 인간을 우습게 보는 문학, 정치적 권모술수, 상술, 유행 등—反 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은 우리 생활 깊숙히 숨어 있다.

「神들린 女人」이란 영화를 보면서 인간을 그렇게도 추하게 연출시키고 있는 이 영화 자체가 反그리스도적이라는 생각에서 몇 번이나 중간에서 일어서서 나오려다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정승현 신부 주임신부〉

❖ 시대의 징표 ❖



인간의 비인간화 (非人間化)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중학교 여학생들 집단으로 손발 마비 (소위 集團轉換反應症)

—한강에 투신한 여인 보고도 시민들 방관. 죽음도 오 불관연 (吾不關焉)하는 저 무정 (無情)

—버스 먼저 타려던 승객에 밟혀 등교길 여중생 압사 (壓死)

—30대 접대부가 10대 손님을 여관에 유인, 독살 (毒殺)

—휴가비용을 만들려던 10대가 강도미수 (強盜未遂)

—고교생 클럽끼리 축구하다가 살인 (殺人) 싸움

요즈음 신문에서 볼 수 있었던 일들이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문제는 문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감증 (不感症)에다 심한 건망증 (健忘症)의 합병 증세에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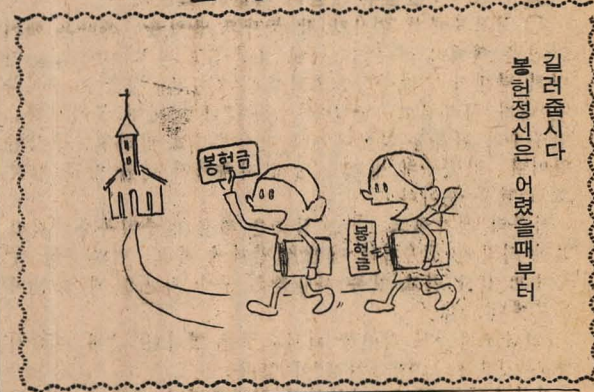
문제로 제기되었을때만 잠시 놀라고 개탄을 하다가도 금방 조용해지고 만다.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도 쉽사리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마는 것이다.

「집단 전환 반응증」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개성을 잃어가는 학교생활”과 “부모나 스승들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지적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문제되었던 (입시지옥)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 이었던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사당하다 못한 학생들이 이제는 등교길에 시내버스 앞에서 밟혀 죽어야 옳은가?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놀랄만한 물질문명의 발달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인간이 서야 할 제자리를 찾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인간이 발휘한 힘들이 인간을 괴롭힐 수도 있고, 인간에게 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힘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사목현장 No.9)

숲 정 이 산책



길러줍시다
불린정신은 어렸을때부터



3.1 사건 공판 방청기 (9)

김 영 신 신부

피압박자와 압박자를 동시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기소된 성직자 교수 민주인사들 18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오늘로 끝났다.

이분들의 반대신문을 4회에 걸쳐 들었는데, 한결같이 국가안보를 걱정할 나머지 현실의 문제점을 정부에 호소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느님께 기도드린 내용들이다. 아마 국민 각자가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의 한나라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으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정부가 국민에게 올바른 일을 못하게 하고 표현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가능성까지도 제거하며 한 가지 주장만 따라주기를 원한다면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산당이 아닐까? 공산당 중에서도 특히 이북은 가장 악랄한 공산국가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에 대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못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상기할 수 있고 헌정부에서 말하듯 국민총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그분들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호소하고 했단다. 문제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법과 수단의 차이만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인 이 태영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이태영박사는 이태 법정대학장을 역임을 했고 현직 변호인으로 국제 여성변호인 협회 부회장이며 국제회담에 참석한 아주 귀한 여성 변호인이다. 어릴 때 세례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 약자편에 살았다는 확실한 기독교 신도이다. 특히 가정에서 천대받고 있는 여성들이 권리 침해를 받고 있어, 여권 옹호를 위해 20년전 가정법원 상담소를 창설했단다. 이렇게 남자 못지않게 인류평화를 위해 인권을 위해 활동을 많이 했던 분으로, 막사사이상을 비롯 국내, 국제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법학도다.

■ 변호사 : 반정부 선동한 사실이 있는가?

○ 정보부에서 26시간 잘 못지고 불명을 쓰라고 해서 26장을 맥떡히 썼다. (이때 검찰측의 제지 발언으로 간단히 말해서) “없다.” 공소사실에 명시된 것중 민주회복은 내가 시작했고, 본인이 “기동대”니 나에게 물어보라.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는데 반정부라고 말하면, 수상한 일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법학도로 했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잘못을 해서 민주회복을 위해 일한 사람은 구속되어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구속하고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재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긴급조치 9호 위반중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연다.) “활동여건”이 없다.

긴급조치는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롭거나 공공질서를 위

해 증대한 사건, 친제지변과 같은 것이 발생했을 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74년 1월 부터 긴급조치가 발동되었고 월남은 작년 4월에 있었다. 결국 월남은 망해버렸다. 어떤 법학도의 저서중 서술한 내용을 보면 이 조치는 “위협적 극약”이라고 표현했다. 이 “극약”은 비상시에만 써야하는데 9번이나 썼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인이 처방을 2년 반동안 계속 “극약”을 먹고 있다.

월남을 보라. 국민총화를 위해서 강제로 하려다 월남은 실패했다. 이 실패한 원인 분석을 전문가가 이렇게 본다. 즉 정권에 의한 권력이나 명령은 국민에게 반발을 산다. 오히려 국민을 사랑하므로 성공할 수 있다. 월남은 그렇게 강제만 썼기에 분리됐고 결국 망했다. 양극화 현상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설교, 자기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인권과 민주라는 말만 나오면 반정부라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국론은 국민총화가 아니다. 오히려 불신과 불만과 불안 등등만을 내포시킨다. 그런 사회적 불만은 위험한 체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 안보는 수단이고 방법이며 목적은 헌정 민주질서를 이룩하는데 있다. 결코 수단을 위해 목적을 포기할 수 없다.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안보를 위해 인권이 무시돼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공박을 했고 경고를 했다.

공산주의가 이름이 나빠서, 민주주의는 이름이 좋아서 따르다 안따르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며 생명까지도 내준다. 이렇게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만이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국민총화 바탕은 바로 이것이 돼야 한다.

서독 ‘본’ 대학 국제연구소 아픈손교수는 오늘과 같은 상황, 특히 분단된 상황안에서 공산주의 위협없이 살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튼튼한 방위, 둘째 자유 인권을 토대로 한 민주사회를 토대로 해서 경제부익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보좌관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정책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전략상의 의의, 둘째 그 민족과 사회 존립성, 셋째 가치의 동질성(가치관이 있어 미국이 동감할 하는가)에 달려 있다. 박태통령도 미국 해방 20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했다고 본다. 그러기에 정부는 여자는 “내딸” 남자는 “내아들”하는 자세로 언제나 감싸줘야 하는데 오히려 분석을 해서 우리편, 반대편, 감옥행, 구속, 감금, 때려죽일놈 등등 편을 갈라 놓는다면 국민총화가 안되고 국가안보상 오히려 저해가 된다. 또한 자세가 똑똑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는 군사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안보 등 국제각종의 안보가 이룩될 수 있도록 다양성안에서 안보가 이뤄져야 분단된 한국에서 국가안보가 이루어진다. <교구 관리국장 신부>

☐ 교리교실 ① ☐

로 마 서

성 태 수

〈수신인=로마 교회〉

바울로가 57~58년 겨울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무렵, 로마에는 상당히 크고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서 있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설립 했을까? 베드루가 설립했다고 흔히 생각하나 그가 로마에 포교 여행을 한것은 사실이지만(고린토 전 9,5참조) 로마에서 포교 했다는 증거는 없다. 로마 교회의 설립자 이름이 전해오지 않는 점으로 보아 로마에 살던 어느 무명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을 받아 귀화해서 로마에 전파했거나, 아니면 신자가 된 예루살렘 출신 어느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신앙을 전파했으리라고 여겨진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신자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교계 신자들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1, 5-6), 로마 신자들이 이교도였다는 것을 암시(1, 13, 15, 16-18) 혹은 명시(11, 13) 하기 때문이다.

〈저술 동기, 시기 및 장소〉

1~3차 포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반부에 많은 지역 교회를 설립한 바울로는 지중해 동반부의 포교 활동은 일단락 된것으로 간주하고 (15, 9)이제 지중해 서반부에 포교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당시 외교계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출발점으로 해서 서반부의 극변인 스페인까지 포교할 계획을 세웠다(15, 24-28).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계획한 로마 방문에 앞서 편지를 통해서 우선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싶었다. 이 로마 서간은 바울로가 책임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다거나, 혹은 바울로가 도와줘야만 되는 주위환경이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만 자기를 로마인들에게 소개하려는 필요성에 의해서 작성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서간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로는 1-3차 포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동반부에 전파한 복음 내용을 총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제3차 포교 여행의 말기 즉 57~58년 겨울에 고린토에서 채류하는 동안 비교적 조용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느 서간보다도 차임새있고 알찬 서간을 저술할 수 있었다.

〈로마서 구조 및 내용〉

- 1) 서두 (1:1-15)-인사 및 집필동기
- 2) 교리편 (1:16-11:36)-신앙에 의한 성의(成義)
 - 1:16-17=교리편의 명제
 - 1:18-3:20=신앙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 3:21-4:25=신앙으로써 구원 된다.
 - 5:1-8:39=구원된 인간상
 - 9-11장=유대인들이 신앙을 배척 한데에 대한 명상
- 3) 윤리편 (12:1-15:13)
 - 12:1-2=윤리편의 명제
 - 13:1-7=국가에 대해서 지닐 태도
 - 14:1-15:13=매법한 사람들과 소심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것
- 4) 맺는말 (15:14-16:27) : 바울로의 사도직, 선교계획, 작별인사. (副祭)

요심이 (156)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고버)

☆교협 여러분의 집☆

한국(流)은수온돌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③ 2143
전주 연락서 주원배(실배들)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혹·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⑤ 5 2 8 9

김금순(테레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은수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동압(모이세)

금암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⑤4342	부안 736
전동 ⑤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개월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암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③ 1665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이상 3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된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명합판 사진, 병적증명서 각 1통.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접수기간 : 1976년 7월 27일 오후 5시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 28일 오후 1시
본 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 내
본조합 사무실 전화 ⑤ 3185.

전주 임원 신용협동조합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사항 *

1. **술정이 배달 사고(配達事故)** 잦아 "술정이 2주간이나 결송(缺送) 되오니 어찌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밝혀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7. 18 수류 김진부)
찾은 배달사고에 항의전화만 받다가 드디어 이런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정이는 분명히 빼놓지 않고 발송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본당, 공소, 개인구독자는 7월중의 사고내용만이라도 편집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때가 온것 같습니다. 본의아니게 격정까지 죄송합니다.
2. 프란치스코 형제회 심의회(매월 끝주 토요일 오후 3시 노충동 성당) 형제회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3. 레지오 마리에 교미시움 회의(매월 셋째주일 오후 1시반. 전동성당) 뿌리아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4. 제4지구 교리교사 하기 수련회(8월2-5일. 위도)
5. 문정현 신부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헌금 김정원 신부 (10,000원)
6. 전주교구 중고등 학생회 하기 수련대회(8월 2-5일, 진안 월포, 참가비: 1인당 350원, 의 경비 본당 부담)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한 봉 섭
제2보좌 신부 김 병 환
사 도 회장 김 상 봉

1. 각 구역 반장 모임: 각 구역장 맥에서(저녁 8시) 27일(화)-서노충동 1. 2지구, 진북 2구. 28일(수)-진북 2구.
* 신부님, 수녀님, 사도회 임원님도 같이 참석합니다
2. 주일학교 여름 특별 교리: 26일 오전 9시~31일(토)
3. 성심 부녀회 하기 피정: (26일) 오전 9시~27일(화)
4. 중·고등학생 하기 피정: 8월 2일(월)~5일(목) 진안 월포 ◎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5.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 강당.
6. 방ziger 살회: 다음주일 오후 2시
7. 독서실 책 대금 미납자 속히 납부 바랍니다.

5. 공소 미사(7월25일): 내동리 공소-오후 3시
농산촌 공소-오후 5시30분.
6. 학생과 청년 하계 특별 성경 연구: 7월28일~31일 오후 9시~12시까지.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교우회합: 27일(화)-13반 김마리아씨 맥<김행자 반장>, 28일(수)-14반 임미카엘씨맥<서요한 반장>, 29일(목)-15반이마리아(명옥)씨맥<신세노피아반장>
 3. 신용 협동조합 정기총회: 7월30일(금) 오후 8시30분 ◎ 조형원은 참석 바랍니다.
- ☆ 복자 성당 축성 10주년 행사-복자 기념관 및 성당 개수 도장 공사에 빠짐없는 적극 참여 바랍니다.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열
사도 회장 조 해 열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국민학생 방학 교리: 7월 26일~7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3. 전례위원 회의: 28일(수) 오후8시30분, 본당 사제관
4. 재경 위원 회의: 29일(목) 오후8시30분, 본당 사제관
5. 첫 영성체 특별교리: 7월 26일~8월 13일까지(매일 오전 9시~10시까지)
6. 성 프란치스코 청년회 1일 피정: 8월 1일(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형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반장님께서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성당 도장 공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7월30일 병자 방문이 있습니다. 반장님을 통해서 접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과 같이 반장님을 임명합니다: 1반-김지혜(사비나), 2반-강준옥(가타리나), 3반-김옥노(루시아), 4반-김순덕(말가리나), 5반-윤성순(수산나), 6반-유보, 7반-최수선(말가리나), 8반-한울순(글라라), 9반-최봉혜(아네스), 10반-임복순(가타리나), 11반-이익순(마리아), 12반, 13반, 14반, 15반-유보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성당 건립 위원회 이사회: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임원 개선: 재경분과<위원장-소완영(스미파노), 부위원장-박은혜(아나다시아)>, 봉사 분과 부위원장-유정순(미레사) ◎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3. 성당건립 성금 봉헌 신입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 신입하신 분-조준석(50만원), 최낙범(20만원), 김용환(20만원). 계 900,000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문 규 현
사도 회장 양 윤 모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봉사 분과 위원회: 오늘 저녁 미사후.
3. 성물(성경, 성가책, 기도서, 교리서), 사무실 편의제공함.
4. 각 동별로 7월말까지 교무금 납부 완료하시기 바람.
5. 중·고등학생 수련회: 7월27일~30일<변산만>
6. 방ziger 3회 전국대회(8월20일~22일, 우리 본당에서 개최 예정)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 김수신대령	본당 미화 작업	4,545원	제3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등	신용 협동조합 임원회의	56,015원
		첫 영성체 준비지도	24,605원			어머니 성심회 월례회	51,661원
제2지구	대문울동합	청년 연수회에 많은 참석 바람	4,360원	제4지구	중 앙동 노충동 서학동 전	유아세례(보레식)	7,685원
		청년회 애령회, 유아세례	19,810원			성심 부녀회 하기 피정	85,599원
		마롱 공소 미사	7,380원			재속 형제회 월례회	15,585원
		뿌리아회, 유아영세	53,235원			성당 건립위원회 이사회	28,508원
까리파스 월례회	29,765원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30일)	23,117원				
구역장 회	17,770원	병자 방문	81,660원				
그리스도왕 모후 뿌리아회	20,000원	글라라 형제회					
제3지구	고 금여산	전진 교리를 위한 공소방문	5,500원	제5·6지구	주계안진남순임	청년회 월례회	12,145원
		성모회 월례회	15,685원			각 공소 전진 교리시작	6,500원
		하기 공소 순방계획	6,025원			반상회 군하리	8,335원
		연령회 월례회	18,785원			8월 1일 중·고등 학생 모임	7,370원